



서호영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장과 정태균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섬 전문위원, 김동주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위원, 오정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기획홍보부장 등이 지난 10일 전남대 실습선 새동백호에서 해양영토 의식 고취와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등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을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영해기점 섬 자원 보호, 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 절실”

대한민국 해양 영토 보호 등 논의 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략 나뉨 섬 자원 개발 지원 필요성 제기 “해양 영토, 국가 안보 중요한 축”

‘2024 섬섬여수-거문도·백도를 가다’ 해양 영토 순례의 마지막 주요 프로그램인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이 지난 10일 새동백호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략과 대한민국 해양 영토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해양 전문가와 지역 사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김기중 전남일보

사업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오강호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장, 오정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장, 서호영 전남대 여수캠퍼스 수산해양대학장, 정태균 전남도청 해양수산국 섬 전문위원, 김동주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위원, 빙기창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첫 번째 논의에서는 대한민국 해양 영토 보호와 섬 정책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서호영 학장은 해양 영토와 관련된 법적, 정책적 대응이 강화돼야 하며, 섬의 공공적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해양 영토는 경제적·환경적 측면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영해 기점이 위치한 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전략에 집중됐다. 오정환 기획홍보부장은 박람회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 행사인 만큼 여수시, 전남도,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람회는 섬의 문화, 자연 자원, 관광 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수와 전남의 섬들이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태균 섬 전문위원은 전남도가 추진 중인 섬 종합 관리 계획을 설명하며, 섬과

해양 영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남도는 섬 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섬이 국가 경제와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주 연구위원은 섬 박람회가 여수의 경제와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섬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섬의 미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설명했다.

빙기창 연구교수는 거문도와 백도를 포함한 무인도서의 실태와 그 보존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들 지역이 해양 영토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패널들은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하며 섬과 해양 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오강호 센터장은 “해양 영토 수호와 섬 자원의 보호는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의 중요한 축”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이 해양 영토 보호와 섬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또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와 섬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다.

송민섭·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 섬의 무한한 가능성 알릴 중요한 기회”

토크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 해양 영토 영해 기점 중요성 “섬 관광 위해 접근성 개선”

‘2024 섬섬여수-거문도·백도를 가다’ 해양 영토 순례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토크콘서트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여수의 아름다운 섬과 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해양영토의 무한한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토크콘서트는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이 강연을 맡아 ‘대한민국 해양 영토와 영해 기점’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강호 센터장은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법적,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며 거문도와 백도의 영해 기점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양 영토는 단순한 물리적 경계를 넘어 국가의 주권과 경제적 자원 보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영해 기점이 국가 안보와 해양 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해양 영토는 국내외에

서 점차 중요해지는 해양 경제와 자원 확보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 센터장은 “영해 기점은 국가의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점으로, 그에 따른 영해선은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 등의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나라가 지정된 23개의 영해 기점 중 거문도와 백도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영해 기점들이 해양 자원 개발, 어업권 보호, 그리고 해양 관할권 확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참가자들에게 해양 영토 수호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두 번째 토크콘서트는 오정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홍보부장이 맡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개요와 전략’을 주제로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소개했다.

오정환 부장은 “2026년 9월부터 11월 까지 두 달간 여수에서 개최될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국제박람회”라며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섬의 무한한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박람회가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섬의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부장은 “섬은 기후 변화와 해양 생태계 보존,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섬 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섬 박람회를 통해 여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해양과 섬 자원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다.

그는 “섬이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의 세계적 과제”라며,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섬의 미래 가치와 섬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국제 회의들도 준비 중이다”며 “참가자들에게 박람회의 성공이 단순히 여수만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해양 정책과 관광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박효연 전남대 문화관광경영학과 교수가 ‘섬의 특성과 섬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섬 관광의



오강호 전남대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이 지난 10일 전남대 실습선 새동백호 강의실에서 ‘대한민국 해양영토와 영해 기점’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박효연 교수는 섬 관광이 국내외에서 점차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섬이 가진 독특한 생태적, 문화적 자원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 특히 섬이 기후 변화와 생태계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며, 섬 관광이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섬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접근성 개선을 첫 번째로 꼽았다. 섬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항공과 해상 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관

광객이 섬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섬의 관광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교수는 “관광객들이 섬에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숙박 시설, 음식점, 체험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섬 관광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는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내세웠다. 박 교수는 “섬 주민들이 관광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지속 가능한 관광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섬의 자연 환경과 문화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민섭·여수=이경기 기자